

독립운동가 '석아 최원순'의 발자취

이동순 조선대 교수, 전집 엮어
광주 출신 '2·8독립선언' 주도
강연으로 민중에 독립 의지 고취
부인은 광주 최초 여의사 현덕신
내년 초 '현덕신 평전' 출간도



최원순·현덕신 부부

광주 출신 독립운동가 석아(石亞) 최원순(1896~1936)은 '2·8독립선언'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로 인해 고초를 겪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석아 최원순의 삶과 활동을 갈무리한 전집이 발간됐다.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이동순 교수가 엮은 '석아 최원순 전집'은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천덕영)의 호남한국학 저술지원총서 시리즈로 발간됐다.

광주수 시기육정 299번지에서 최의준과 박보성의 3남으로 태어난 최원순은 광주공립소학교(현 서석초등)를 졸업한 뒤 서울로 올라가 경성고등보통학교(현 경기고)에 입학했다. 이후 일본으로 유학해 와세다 대학교 정경학부에 입학한 후 2·8독립선언을 주도했다.

1920년부터 1922년까지 최원순은 일본 유학생 전국 순회강연단으로 전국을 누비며 세대를 일깨우는 열변으로 조선 민중에게 독립 의지를 고취시켰다. 이후 일본유학생학우회 임원으로 '학지광' 편집장으로 활동하며 필명을 날렸다. 특히 이광수

가 1922년 '개벽'(5월호)에 발표한 '민족개조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이촌원에게 문화노라'를 써서 이광수의 빈약한 시대정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유학을 마치고 1923년 귀국한 최원순은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후 정치부장을 거쳐 편집국장 대리를 역임했다. 언행일치, 정론직필로 총독정치를



비판해 투옥됐으며 1927년 신간회 창립 발기인이자 임원으로 활약하며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일제에 의한 투옥과 고초로 폐병을 얻어 1928년 고향인 광주로 내려온다. 그는 광주천변에 석아정을 짓고 요양하며 민초들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부투했다.

책은 모두 2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최원순이 최원순이 '현대'에 쓴 글 '생존의 의의와 요구에 대하여'부터 '신가정'에 마지막 발표한 마지막 글 '조선가정고 조선고악-고악의 보편을 원한다' 등 27편을 담았다.

2부는 부록으로 작품의 연보와 생애 연보를 비롯해 최원순의 삶과 정신을 밝힌 해설 '석아 최원순의 삶과 역사적 의미'를 실었다.

이동순 교수는 "'석아 최원순 전집'이 한국 근현대사와 한국 독립운동사, 한국언론사, 광주지역사, 광주인물사, 그리고 우리의 정신문화사 연구를 위한 토대로 활용"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원순의 부인으로 이화학당을 졸업한 광주 최초 여의사 현덕신(1896~1963)의 독립운동과 삶을 기리는 '현덕신 평전'도 내년 초에 발간될 예정이다. 최원순과 현덕신은 조선대 미대 학장을 지낸 최영훈 화백의 조부모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시와 그림의 앙상블

향토문화예술인회, 22일 장성 충예원 '숲속의 시와 그림전'

꽃과 자연을 소재로 한 시와 그림의 앙상블이 장성의 시골 마을에서 열려 눈길을 끈다.

향토문화예술인회(회장 이정남)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충예원(장성군 장성읍 덕진덕산길 20-1)에서 '숲속의 시와 그림전'을 개최한다. 이번 시화전은 (사)한국예절문화교육원과 (사)한림문화재단, 계간 '남도문학'이 후원한다.

가을의 정취가 완연한 시골 마을에서 열리는 이번 시화전은 서양화가 이정남 향토문화예술인회 회장과 이재관 시인이 의기투합해 펼치는 문화의 장이다.

이 회장은 "타 기관의 지원없이 재능기부와 봉사활동 개념으로 마련했다"며 "풍광이 아름다운 시골집에서 이뤄지는 전시회인 만큼 자연속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시화전에는 모두 52명의 전남문협 소속 문인들이 시를 출품했다. 이를 토대로 화가인 이 회장이 직접 그림과 글씨를 곁들여 하나의 시화가 완성된 것.

구체적인 작품으로 김복 작가의 '새이다오', 박형동 시인의 '손녀옆에서', 이춘배 시인의 '단풍 앞', 임원식 시인의 '단풍나무 아내', 임춘임 시인의 '연꽃, 닦다', 이재관 시인의 '하늘 우러러 땅달 구어' 등을 만날 수 있다.

22일 개막식에는 김종렬 외 4인의 국악공연, 박행자 시인과 강명숙 시인의 시낭송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행운의 경품 추천 시간에는 이 회장의 '무등계곡'과 '가을계곡'을 추첨을 통해 선사할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희귀 LP 들으며 마음 충전

'담양LP음악충전소' 20일 개관...음악 역사 전시·LP 체험 공간 등

스트리밍이나 음원으로 노래를 듣는 게 대체지만, 음악을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LP에 대한 추억 하나쯤 갖고 있다. 최근에는 레트로 열풍으로 LP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한정판 발매가 이뤄지고 있다.

희귀 LP판을 만나고, 음악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문을 연다. 담양군이 담양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담양LP음악충전소' (담양읍 중앙로 83길)가 20일 오후 2시 준공식 열고 공식 개관한다.

옛 담양청소년문화센터에 자리한 담양LP음악충전소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담양군과 광주 MBC가 공동추진했다. 이 공간에는 '비틀즈' 오리지널 앨범 등 광주MBC가 소장한 오리지널 LP 등 1만3000여 장의 LP와 CD 5000여장이 전시된다.

1층에는 담양의 문화관광을 홍보하는 마케팅홀과 대형 LED 설치됐다. 2층 전시홀은 LP를 통해 음악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LP 플레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오



'담양LP음악충전소' 조감도

리지널 앨범과 아날로그 장비들로 구성됐다. 디지털 장비를 갖춘 3층에서는 DJ 룸을 운영, 관람객의 사연과 신청곡을 DJ가 들려주고 공연 이벤트도 진행한다.

개관 특별전으로는 '월간 팝송', '핫뮤직' 등 음악 전문 잡지의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또 신청자가 직접 DJ가 되어보는 '담빛 DJ 데이', 개인 소장자의 LP를 선보이는 '담빛 내 마음의 LP데이' 등도 개최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생활 예술인들과 '히히knock樂' 15~16일 빛고을농촌테마공원서 페스티벌

생활 속에서 문화 예술을 즐기는 이들이 많다. 직업 예술인이 아닌 일상에서 동아리 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문화를 즐기는 이들은 그 자체로 즐거움을 얻는다.

가을이 무르 익어가는 이번 주말 생활문화 예술인들이 펼치는 축제가 열려 눈길을 끈다. 일명 '히히knock樂 페스티벌'.

오는 15~16일(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남구 양과동 빛고을농촌테마공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페스티벌은 광주문화재단이 2022 생활문화예술활동단체 및 동아리지원사업 참여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기획됐다.

축제가 진행되는 빛고을테마농촌공원은 농촌을 주제로 한 다양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 농업전시 체험관을 비롯해 힐링 가든인 화훼유리온실, 곤충 박물관, 농업지원시설, 생태연못, 도시텃밭 등이 있어서 가족이 함께 나들이하기에 좋은 곳이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37개 단체가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공연은 물론 전시와 체험부스 등의 부대행사도 운영된다.

먼저 15일은 하나무용봉사예술단을 비롯해 모



지난해 개최된 생활문화예술축제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

두 22개 단체의 공연이 펼쳐진다. 16일에는 소리사랑문화예술단 외 10개 단체의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과 아울러 효령문화동인회의 시화전, '내가 그린 기린그림'의 액자 그림전도 진행된다. 또한 '경계-인'의 미수작품 전시 등도 열릴 예정이어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문화 예술과 함께 만끽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생활문화예술활동단체 및 동아리지원사업은 문화여가생활 진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0개 활동단체와 동아리가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문의 062-670-7449.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댄스뮤아'와 차 한잔 하실래요?

국립남도국악원 토요일 상설공연...12월까지 스탬프 쿠폰 이벤트

국립남도국악원은 이달 15일 오후 5시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에서 토요일 상설공연 '차 한잔 하실래요?'를 연다.

이날 공연에는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추구하는 '댄스뮤아(DanceMUA)' 팀이 함께한다. 한국전통예술에 바탕을 두고 한국적 모던함을 추구하는 댄스뮤아는 신선한 감각과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연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그룹이다.

공연은 차를 마시는 몸짓에 전통 무용 동작이 가미된 모습을 하고 있다. 삶 속에서 마주하는 계절의 이야기를 소리와 몸짓으로 발현해 단순 계절의

소리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계절을 통해 느끼는 감정과 감각들을 구체화했다.

'수연장지곡'으로 시작된 공연은 겨울 I '솟은 기운 겨울의 기운이 샘솟다', 봄 '한창때에, 여름 '소나기', 가을 '공허한 마음', 차 한 잔 하실래요? 기곡-태평가, 겨울II '뿔어진 희망' 등으로 펼쳐진다.

공연은 시작 전후로 진도 읍내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해 관람할 수 있다. 12월까지 공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어 다양한 기념품도 제공된다. 문의 061-540-4042.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